

‘담양한우’ 전국 최고 브랜드화 힘 쓴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한우개량연구회 창립총회 갖고 역량 강화 한우 농가 대상 축산전문인 양성위해 24회 100시간 장기 교육

담양군이 담양 한우산업의 발전 및 ‘담양 한우’의 전국 최고 브랜드화에 집중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초 축산연구사를 채용하고 4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2일 한우개량연구회 창립총회를 갖고 최근에는 한우 농가의 개인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나섰다.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전문경

영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농업인대학은 24회 100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교육 과정이다. 본 과정은 2016년에 이어 교육생들의 고품질 한우 생산기술 대한 배양의 욕구, 신진농장과 연구소 등 현장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2017년에는 2년차 심층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고령령 한우개량, 한우 인공수정, 비육우 사양관리, 고품질 한우 생산 브랜드

마케팅 충남대학교, 목천한우농장 견학 등의 교육이 실시됐다. 25일과 오는 27일에는 강수원 참우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비육우 사양관리법에 대해 강의하고 농가들의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농업인대학 자치회 김옥범 학생장은 “그동안 한우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축산기술을 습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나 한우교육 전문과정이 개설돼 농가들마다 이론을 배우

고 현장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농업인 대학 교육이 농가 소득향상 물론 담양 한우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장풍환 소장은 “농업의 최고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자세에서 나온다. 디테일한 기술력은 꾸준한 학습과 현장에 접목하는 실천력에서 비롯되고 이를 매일매일 영농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를 ‘담양한우’ 브랜드를 육성하는 원년으로 삼고 집중 교육을 통해 담양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려 가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견우직녀와 함께 떠나는 우주 여행”

곡성읍신강천문대, 여름방학 별자리교실 운영

곡성군은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천문학을 통한 호기심과 탐구심 배양을 위한 여름방학 별자리교실을 오는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 견우직녀 설화를 통한 천문강연과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는 지도가 되는 ‘회전별자리판 만들기’와 에어로켓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과학교구 만들기 체험을 비롯하여, 천체투영실에서는 별과 우주에 관한 3D 영상을 관람하고, 여름철 별자리와 토성, 백조자리 이중성 등을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천문대 별자리 체험과 더

불어 곡성군의 관광지인 기차마을 및 레일바이크, 섬진강 레프팅 등의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할 수 있어, 가족간의 정서적 교류와 원활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작은 추억 또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및 중학생이 포함된 가족으로 매일 35명 정원으로 4일간 운영되며, 신청은 사전에 전화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곡성읍신강천문대 홈페이지(<http://star.gokse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문의는 천문대 전화 (061-363-8528)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광휘 기자

해남군, 내달 8일부터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무더운 열대야를 시원하게 날려 버릴 한여름밤의 축제가 해남에서 펼쳐진다.

해남군은 오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군민광장에서 뜨거운 여름밤의 더위를 식혀줄 ‘2017 땅끝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매일 저녁 8시부터 펼쳐지는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는 타악 콘서트와 비보이 댄스, 팝페라를 비롯해 뮤지컬 갈라쇼, 가요콘서트, 최신 영화상영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한 지역 예술인 무대를 비롯해 군립합창단, 다양한 창작 동아리의 줄길거리도 마련된다.

첫째날인 8일,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불꽃쇼를 시작으로 퓨전 타악그룹 ‘타쇼’의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인 무대와 비보이 댄싱, 전 자현악팀의 크로스오버, 팝페라의 콜라보레이션 쇼가 열린다.

둘째날에는 20여명의 대안원이 출연하는 정동극장의 전통뮤지컬 갈라쇼와 신인 걸그룹 힌트가 특별무대를 선보인다. 셋째날에는 개그맨 김화도의 사회로 가수 오승근, 박미경, 박상민, 위일형, 우연이, 서울패밀리 밴드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가요콘서트가 펼쳐진다.

11일과 12일에는 최신개봉영화를 대형스크린을 통해 야외에서 상영한다.

해남군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한 2017 지방문화예술포럼 기획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 복원기금을 지원받아 열린다.

강진군, 마늘·양파·대파 틈새 소득작목 집중 육성

마늘종구 등에 5억 투입...농한기작목 확대 지원



강진원 군수, 마늘식재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같이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 안정화를 위해 강진군이 벼 이모작 양한기 틈새 소득작목으로 마늘·양파·대파 재배면적 확대에 나서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

마늘·양파·대파는 강진군의 주요 유흥고소득 작물이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과 타 작물에 비해 종구 구입비 등 재배 초기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 작전, 신진면 지역 주산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면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올해 재배면적은 마늘 368ha, 양파 76ha, 대파 7ha 총 450ha. 지난해 식재시기 집중호우와 비대기 가뭄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마늘의 경우 벼, 보리 등을 제외한 단일 작목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효자 품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군은 내년 재배면적을 총 600ha까지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1천ha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6월 20일 읍면 마늘·양파 작목반 대표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2017년도 마늘종구 및 양파종자 지원사업과 이식기, 육묘용 포트 등 노동력 절감 기계·장비 확대 지원과 아울러, 재배적인 사질양토 논을 중심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유통 교섭력 증대를 위해 재배 농가를 조직화 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군은 마늘·양파 분야에 우량종구 지원, 양파종자 지원 등 총 5억 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예산 및 내년 분예산에 관련 예산 추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면적 확대를 위한 뒷받침을 해 나가기로 했다.

마늘 종구사업은 그동안 종구 갱신 없이 매년 퇴물이 재배로 쏙이 많아지고 품질이 떨어져 타지역산보다 낮은 가격이 거래되었다. 이에 따라 마늘 주산지인 작전, 신진면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종구 갱신 필요성을 건의해 강진원 군수가 이를 적극 검토했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2억여원 사업비를 지원해 오면서 종구개량 효과가 나타나 2~3년 전부터는 강진산 마늘이 타지역보다 1kg당 300원 정도를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수량도 20%이상 증가하는 등 마늘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해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양파 재배면적은 80ha 수준에서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걸림돌인 농촌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파종기, 이식기, 육묘상자 등 기계화 장비 지원과 재배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대파는 섬진면을 중심으로 7ha의 비가림 하우스 친환경 재배를 해오고 있다. 후작으로 감자, 양배추 등을 재배해 600㎡ 당 9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생산 기반시설인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쌀값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며 “마늘·양파는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유흥 소득작목으로 관련 사업비 확대 지원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로 농가 실질소득 향상과 확실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최재영 기자

영암군 시종면 자율방재단, 도로변 수목 제거 자원봉사

영암군 시종면 자율방재단(단장 김시문)에서는 지난 7.15일 2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도로변에 무성히 자란 잡목 제거에 나섰다.

도로변 나무제거작업은 방재단이 자율봉사활동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시종면 동방제 도로변 0.3km구간과 학림마을 진입로 0.2km 구간에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 시야 확보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였다.

이번 방재단 봉사활동은 회원 각자가 톱 등을 갖고 나와 포크레인 작업후 남은 나무뿔뿔까지 자라 내어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시종면 방재단(단장 김시문)은 “시종면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변 수목 정비활동을 했다.



앞으로도 안전한 시종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종면에서는 도로변의 무성하게 자란 잡목들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4개소에 수목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영암=강원훈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여수 010-6661-6669
구례 010-2325-8439	영광 010-3611-3081
나주 010-3625-6665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61-552-5005
목포 010-7344-0200	장성 010-5287-7711
하당 010-5508-3830	장흥 061-862-7787
무안 010-5234-2313	진도 010-3081-5203
보성 061-853-9125	함평 011-641-3189
순천 010-2300-9083	화순 010-2077-6464
광양 010-5604-6981	고흥 010-4656-6293
해남 010-8600-2768	곡성 010-3615-1088

호수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마름길을 열어줍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